

## 性教育이 女高生の 性에 對한 知識 및 態度에 미친 效果

房 美 羅 \*

### The Effect of Sex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High School Girls

Mi-Ra, Bang

####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ssess the effects of a long term regular sex education on the knowledge about anatomy and physiology of human reproductive organs and the attitude toward sex of second grade high school girls.

The study population included 1,678 high school girls (542 educated second grade girls, 972 not educated second grade girls and 164 pre-educated first grade girls) attending in 3 high schools located in Kyungnam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 to assess knowledge of sexual anatomy and physiology and the attitude toward sex from 21 to 24 December 198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ost of students (educated group 99.3%, not educated group 98.1%) agreed to necessity of sex education.

Among students 70.8% did not talk about their sexual problems with their parents and 30.1% of educated group obtained sexual knowledge from their teacher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evel of knowledge on anatomy and physiology of reproductive organs, secondary growth spurt, V D, pregnancy and contraceptives of educated group and not educated group ( $P < 0.01$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ttitude about sexual intercourse before marriage, artificial abortion and family planning slogan of educated group and not educated group ( $P < 0.05$ ,  $P < 0.01$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gree of agreement abou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knowledge of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talk freely with friend, parent and teacher of educated group and not educated group ( $P < 0.05$ ,  $P < 0.01$ ).

Statistics revealed that high school girls of not educated group had less knowledge abou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than educated group ( $P < 0.01$ ).

\* 慶北大學校 保健大學院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음으로써 문화와 가치의식의 혼돈 및 성도덕의 문란을 유발하게 되었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3)</sup>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변화를 겪으며<sup>4-6)</sup> 신체적인 급성장과 2차 성장의 발현, 성의 자각과 이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 불안, 초조 및 성충동 등으로 심리적 동요가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7)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성지식의 빈곤, 왜곡된 성지식, 사회의 무절제한 성의 노출 등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미혼모, 사생아 및 십대 청소년의 유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성적충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인 건강과 이성 및 결혼과 관련된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저항감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장래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성교육은 지극히 중요하다 하겠다.<sup>9)</sup>

그러나 대부분의 중등학교들은 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시위주의 학사운영으로 인한 성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불이해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기술에 대한 지적 결여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김 11) 등의 연구에서 중등학교 남·녀 학생의 성생리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낮았는데 제 2차 급성장기를 거치는 중등학교 학생이 성생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태도를 형성하여야 건전한 성교제를 지도하며, 미혼모나 모성 사망을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의 교과단원에 성과 관련된 내용은 수록되어 있으나 그것은 성교육의 목적을 지니지 않았고, 각 교과와의 연계성을 지닌 성교육 가치 개념으로 통합시키지 못했고 일부 교사의 자유 재량에 의거, 소극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

는 형편이다.

성교육 실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 12)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과외 시간으로 1일 1시간씩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분히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보고와 주 2시간씩 2주에 걸쳐 4시간의 집약적인 성교육 후 성에 대한 지식면에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는 이 14)의 보고가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규 수업시간에 윤리, 생물, 체육, 가정의 성에 대한 내용을 성교육 목적으로 통합시킨 지침서 13)를 교재로 여고 2년생에게 주 1시간씩 24시간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로 교육의 효과를 알아 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보완되어야 할 성교육의 방향설정에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성교육이란 상기 지침서에 수록된 내용을 정규시간에 포함시켜서 교육한 것을 의미한다.(부록 1).

## II. 대상 및 방법

### 1. 대 상

본 연구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는 1개 인문계 여고 2학년 전학생 548명을 연구대상군(교육군)으로 경남도내 인구 및 면적이 유사한 중소도시인 김해시 및 진해시 인문계 여고생 2학년 987명 전체학생을 비교군(비교육군)으로 하였으며 1988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성문제와 관련된 지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기록케 한 후 회수하였다.

조사전에 연구대상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 및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간 유의한 차이를 조사하지 못했으므로 양지역의 여고생 1학년 1개반 5명과 2개반 109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일반적인 특성 및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부록 2와 같다.

2. 연구방법

연구자가 교육군에게 실시한 성교육은 성교육 지침서에 의해 체육 이론 시간에 주 1시간 총 24시간 실시하였고 그 시기는 1988년 3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으며 그 내용은 성에 대한 지식,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한 상

담 및 지도 항목이었다. 조사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성교육 수업시에 사용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수정 보완후 사용하였다. 기록이 미비한 교육군 6명과 비교육군 15명을 제외하고 교육군 542명 비교육군 972명 총 1,514명이 실제 조사 대상자이었다.

성 적

< 표 1 > 대상자의 특성

		교육군		비교육군		계		x <sup>2</sup>
		인 수	%	인 수	%	인 수	%	
가족 규모	대 가 족	146	26.9	243	25.0	389	26.0	0.675
	핵 가 족	396	73.1	729	75.0	1,125	74.0	
형제유무	유	518	95.6	929	95.6	1,447	95.6	0.015
	무	24	4.4	43	4.4	67	4.4	
주거 형태	자 가	494	91.1	904	93.0	1,398	92.3	1.717
	자취나 하숙	48	8.9	68	7.0	116	7.7	
종 교	유	241	44.5	418	43.0	659	43.5	0.291
	무	301	55.5	554	57.0	855	56.5	
어머니의 학력	국 줄 이 하	111	20.0	231	24.0	342	22.6	2.767
	중고졸이상	431	80.0	741	76.0	1,172	77.4	
부모와 성문제를 상담	예	177	32.1	268	27.6	442	29.2	3.469
	아 니 오	368	67.9	704	72.4	1,072	70.8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여부	필요 하 다	538	99.3	954	98.1	1,492	98.5	3.193
	필요 하 다	4	0.7	18	1.9	22	1.5	
이상적인 남성 선택의 기준	외 모	97	17.9	225	23.1	322	21.3	7.485
	경 제 력	9	1.7	15	1.5	24	1.6	
	언 행	389	71.8	634	65.2	1,023	67.6	
	기 타	47	8.7	98	10.1	145	9.5	
계		542	100.0	972	100.0	1,514	10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교육군과 비교육군으로 보면 가족규모는 핵가족이 전 대상자의 74.0%이었으며 형제가 없는 학생이 4.4%이었다.

주거형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92.3%로 대부분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상인 학생이 77.4%이었다. 성 문제에 대하여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다가 70.8%이었으며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 대상자의 98.5%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상적인 남성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언행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외도가 21.3%이었고, 경제력은 1.6%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모든 항목에서 교육군과 비교육군간 유의한 차는 없었다. (표 1).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492 명의 학생 중 성교육 배정시간 및 시기에 대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배치해야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의 51.9%이었고 교육군이 61.0%로 비교육군의 46.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p < 0.01$ ). 적절한 성교육시기에 대하여서는 양군 모두 중학교때로 56.0%이었으며 고등학교 이상이 31.3%, 국민학교 시기가 12.7%이었으며 양군간 유의한 차는 없었다 (표 2).

성지식은 매스콤, 친구 및 부모로부터 얻었다가 전체의 76.9%이었고 선생님께서 부터가 23.1%이었으며 교육군은 30.1%로 비교육군의 19.1% 보다 더 높았으며 양군간 유의한 차가 있었다. ( $p < 0.01$ ) (표 3).

해부생리 및 2차 성징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교육 받지 않은 1학년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보면 교육군 전원이 평균치 이상이었으며, 비교육군의 54.3% 보다 높았다.

성병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보면 교육군에서 평균치 이상이 100.0%로 비교육군의 76.3% 보다 높았으며 1학년의 71.3% 보다 높았다.

피임, 임신 및 서생리에 대한 지식 정도는

<표 2> 성교육 시간 및 시기에 대한 견해

		교육군		비교육군		계		$\chi^2$
		인수	%	인수	%	인수	%	
성교육 시간배정	정규교과시간	328	61.0	446	46.8	774	51.9	27.844**
	비정규교과시간	210	39.0	508	53.2	718	48.1	
적절한 성교육 시기	국민학교	62	11.5	128	13.4	190	12.7	1.112
	중학교	305	56.7	531	55.7	836	56.0	
	고등학교	171	31.8	295	30.9	466	31.3	
계		538	100.0	954	100.0	1,492	100.0	

\*\*  $p < 0.01$

<표 3> 성지식의 출처

	교육군		비교육군		계		
	인수	%	인수	%	인수	%	
매스콤, 친구,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379	69.9	786	80.9	1,165	76.9	23.391**
	163	30.1	186	19.1	349	23.1	
계	542	100.0	972	100.0	1,514	100.0	

\*\*  $p < 0.01$

교육군 전원 (100.0)이 평균치 이상이었고 비교육군에서는 평균치 이상인 학생이 75.1%로 나타났으며 1학년의 53.0% 보다는 높았다 (표 4).

성, 인공유산 및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를 각 항목별로 교육군과 비교육군에 따라 보면 “성은 신성하고 아름답다”는 항목에 대해 찬성율이 교육군이 64.2%로 비교육군의 49.1%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 $p < 0.01$ ), 1학년 중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응답이 38.4%에 비해 교육군은 19.0%로 비교적 낮았으며 비교육군과 유의한 차를 보였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는 무방하다에 대한 불찬성율이 교육군이 87.6% 비교육군이 88.3%로 큰 차이는 없으나 “생각해 본 일이 없다”의 항목에서 1학년 11.0%, 비교육군이 6.8% 이었고 교육군은 3.9%로 교육군과 비교육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혼전 성관계”와 “인공유산은 죄악이다”의 항목에 대해 교육군의 찬성율이 각각 12.2% 및 70.5%로 비교육군의 8.4% 및 58.3% 보다 낮은 비율이었고 양군간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 $p < 0.01$ ).

“미혼모, 강간 및 질병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인공유산이 필요할 때”의 항목과 “가족

계획 슬로건”에 대한 여고생의 찬성율이 교육군에서 각각 94.5% 및 86.7%로 나타나 비교육군의 84.8% 및 84.0%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여학생이 비교육군에서 높아 양군간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1$ ) (표 5).

고등학생으로서 이성교제에 대하여 찬성율이 교육군 75.1%로 비교육군의 73.6%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좋다는 찬성율이 교육군이 97.4%로 비교육군의 93.9% 보다 더 높았다.

친구와의 자유로운 대화에 대한 찬성율은 교육군이 97.0%로 비교육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모나 선생님과의 자유로운 대화에 교육군이 95.4%로 비교육군의 89.5% 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이성교제에 관한 4개 항목 모두에 있어서 교육군과 비교육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p < 0.01$ ),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항목은 비교육군이 각각 6.2%, 3.6%, 2.3% 및 4.9%로 교육군의 2.0%, 0.4%, 0.2% 및 0.9%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다 (표 6).

성욕 및 성생리에 대한 태도는 “성욕은 이성으로 조절해야 한다”와 “인간은 성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에 대한 찬성율이 교육군이 각각 94.1% 및 92.3%로 비교육군의 80.8% 및 89.0% 보다 높았으며, “생각해 본 일이

<표 4>

성과 관련된 지식의 정도

항 목	지식의 평균치	1 학 년		교 육 군		비교육군	
		인 수	%	인 수	%	인 수	%
해부생리 및 2차성징 (0점~10점)	7.5 이상	94	57.3	542	100.0	528	54.3
	7.5 이상	70	42.7	0	0.0	444	45.7
성병의 종류 및 감염경로 증상 예방에 대한 지식 (0점~5점)	3.0 이상	117	71.3	542	100.0	742	76.3
	3.0 이상	47	28.7	0	0.0	230	23.7
피임, 임신 및 성생리에 관한 지식 (0점~17점)	9.7 이상	87	53.0	542	100.0	730	75.1
	9.7 이상	77	47.0	0	0.0	242	24.9
계		164	100.0	542	100.0	972	100.0

<표 5 >

성, 인공 유산 및 가족 계획에 대한 태도

	1 학 년		교 육 군		비 교 육 군		x <sup>2</sup>
	인 수	%	인 수	%	인 수	%	
성은 신선하고 아름답다							
찬 성	72	43.9	348	64.2	477	49.1	40.148**
불 찬 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9	17.7	91	16.8	171	17.6	
	63	38.4	103	19.0	324	33.3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는 무방하다							
찬 성	24	14.6	46	8.5	48	4.9	12.119*
불 찬 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22	74.4	475	87.6	858	88.3	
	18	11.0	21	3.9	66	6.8	
사랑하는 사이의 혼전 성 관계는 무방하다							
찬 성	21	12.8	66	12.2	82	8.4	16.623**
불 찬 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29	78.7	459	84.7	816	84.0	
	14	8.5	17	3.1	74	7.6	
인공유산은 최악이다							
찬 성	70	42.7	382	70.5	567	58.3	43.613**
불 찬 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0	30.5	133	24.5	249	25.6	
	44	26.8	27	5.0	156	16.1	
미혼모, 강간, 질병등의 이유로 인공유산이 꼭 필요할 때							
찬 성	132	80.5	512	94.5	824	84.8	35.043**
불 찬 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0	16	3.0	45	4.6	
	32	19.5	14	2.5	103	10.6	
“잘 키운 딸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가족계획 캠페인에 대하여							
찬 성	140	85.4	470	86.7	816	84.0	11.248*
불 찬 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3	11.9	64	11.8	109	11.2	
	11	6.7	8	1.5	47	4.8	
계	164	100.0	542	100.0	972	100.0	

\* x<sup>2</sup> 검정은 교육군과 비교육군을 비교했음.

\* : p<0.05, \*\* : p<0.01

< 표 6 >

이성교제에 관한 태도

				1 학년		교육군		비교육군		x <sup>2</sup>
				인수	%	인수	%	인수	%	
고등학생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찬		성	109	66.5	407	75.1	715	73.6	14.541**
	불	찬	성	41	25.0	124	22.9	196	20.2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4	8.5	11	2.0	61	6.2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 수록 좋다	찬		성	141	89.0	528	97.4	913	93.9	14.484*
	불	찬	성	18	11.0	12	2.2	24	2.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0	2	0.4	35	3.6	
친구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함	찬		성	151	92.1	526	97.0	924	95.1	9.129*
	불	찬	성	13	7.9	15	2.8	26	2.7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0	1	0.2	22	2.3	
부모나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찬		성	145	89.0	517	95.4	870	89.5	19.883*
	불	찬	성	18	11.0	20	3.7	54	5.6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	0	5	0.9	48	4.9	
계				164	100.0	542	100.0	972	100.0	

< 표 7 >

성욕 및 성생리에 대한 태도

				1 학년		교육군		비교육군		x <sup>2</sup>
				인수	%	인수	%	인수	%	
인간의 성욕은 이성으로 조절 조절해야 한다.	찬		성	139	84.8	510	94.1	778	80.0	54.400**
	불	찬	성	11	6.7	24	4.4	148	15.2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4	8.5	8	1.5	46	4.8	
인간이 동물과 다른점은 성충동을 이성으로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		성	140	85.4	500	92.3	865	89.0	24.480**
	불	찬	성	7	4.3	36	6.6	45	5.0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	10.3	6	1.1	62	6.0	
성생리에 관련된 얘기를 친구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찬		성	137	83.5	497	91.7	843	86.7	11.068*
	불	찬	성	10	6.1	22	4.1	44	4.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7	10.4	23	4.2	85	8.8	
성생리에 관련된 얘기를 부모와 선생님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찬		성	118	71.9	467	86.2	740	76.1	29.979**
	불	찬	성	19	11.6	48	8.8	99	10.2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7	16.5	27	5.0	133	13.7	
계				164	100.0	542	100.0	972	100.0	

\* p < 0.05, \*\* p < 0.01

없다”에 교육군이 1.5% 및 1.1%로 비교육군이 1.5% 및 1.1%로 비교육군의 4.8% 및 6.0%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성생리에 관한 얘기를 친구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와 “부모와 선생님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에 교육군의 찬성율이 각각 91.7% 및 86.2%로 비교육군의 86.7% 및 76.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 $p < 0.05$ ,  $p < 0.01$ ), “생각해 본 일이 없다”의 항목은 표 7에서의 4항목 모두에 있어서 비교육군이 더 높았고 양군간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 $p < 0.01$ ,  $p < 0.01$ ) (표 7).

### III. 고 찰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은 그들을 성적 무지와 왜곡된 성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적 에너지의 분출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은 물론 성범죄 예방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도덕관으로 보아 여성은 성적행위의 피해자가 되며 그 결과는 개인 뿐만 아니라 미혼모, 기아, 매음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으며, 또한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전한 모성은 국가의 장래까지 좌우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고생의 성교육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규 교과시간에 성교육을 받은 여고생과 받지 않은 여고생의 성지식 및 태도를 비교한 결과로써 성교육의 필요성은 교육군의 99.3% 및 98.1%가 찬성을 나타낸 김 2)의 필요성 인지군 75% 및 김 9)의 82.6% 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조사 연도의 차이로 보여지며 갈수록 성교육의 요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인 남성을 선택시의 기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언행으로 외모나 경제력 보다 앞서는 것으로 미루어 배우자로서의 남성보다 막연한 생각이 먼저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

자의 선택을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성교육의 과제라 생각한다.

성교육 시간배정에 정규교과 시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높아 성교육이 여고생에게는 새롭고 흥미있는 과목으로 인식되었음을 나타내었으며 김 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낮았다. 이는 대상자가 비교육군으로 본 연구에서의 비교육군의 요구도와 유사한 결과이었다.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에 대하여는 중학교 시기가 56.0%로 김 9) 김 12) 등의 연구와 비슷하여 학생들이 성에 대한 개방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8)을 받기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지식의 출처는 선생님 한테서가 교육군이 30.1% 비교육군이 1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김 9)의 2.1%, 전 14)의 9.2%, 김 15)의 12.4% 보다 높았으며 성교육후 즉시 조사한 김 12)의 33.3% 보다 낮았다. 이는 청소년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성지식을 얻게 되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성교육이 바람직하다.

성에 관련된 지식을 인체의 해부생리 및 2차 성징, 성병, 피임 및 임신 생리나 나누어 교육군과 비교육군을 1학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본 결과 교육군에서는 전원이 평균점 이상이었고, 비교육군은 해부생리 및 2차 성징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이었고 성병에 대한 지식은 76.3% 피임 및 임신 생리에 대하여는 75.1%가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나 성병 및 임신 생리는 비교육군에서도 비교적 많은 학생이 알고 있었으나 교육군보다 적은 비율이었다. 이는 지식의 전달면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나 대상들이 모두 여고 2학년생이며 조사시기가 교육 직후이기 때문인 영향도 있으므로 1학년과 비교육군의 성에 대한 지식의 부정확성이나 부족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로 교육이 종결 되거나 대학생이 된다면 성적 문란이나 미혼모의 발생, 인공유산의 발생 및 기타 원치 않는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 지식, 태도 및 행위 변화의 기초단계인 지식이 부적절하면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문제를 조기에 이해하기 위한 지적 정보 전달이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

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즉 약혼한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무방한가 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가 무방한가에 대한 태도는 각각 그리고 1학년과 양군 모두 불찬성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런 결과는 이 4), 김 9) 김 12)의 연구 결과에서 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양권의 문화적 요인이 보수적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어 긍정적이나 아직도 찬성율과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비교육군에서 약간 높아 가입기에 있는 여학생이라는 점과 태도는 행위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불때 미혼모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한 태도변화를 계속 유도해야 하겠다.

인공유산의 죄악시, 불가피한 경우의 인공유산 그리고 가족계획 슬로건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하기 위한 교육의 효과는 인공유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4), 박 17), 홍 18), 성 19) 등의 보고에서와 같이 교육의 수행이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도록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갖도록 유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교육으로 제공한 결과는 비교육군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김 9) 이 20-22)의 보고에서와 유사했는데, 중요한 관심은 건전한 교제방법 1)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중등학교에서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간 이성교제나 성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지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군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했으며 이에 대해 친구나 부모님과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교육이 선생님과 상담은 어느 정도 가능케 했으나 전통적 관습이나 주위 여건으로 부모와의 자유로운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접교육도 바람직하나 부모교육이나 교사를 성문제 상담자로 훈련시키는 간접교육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성욕을 이성으로 조절해야 한다”와 “성생리에 대한 지식습득을 이야기 할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에 대한 여고생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산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체계적 교육 기회를 통해 일반 교과목과 다른 내용 즉 자신들의 성적 흥미와 관련이 있는 성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찬성율이 높았으며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Cornelia<sup>23)</sup>, Mandetta<sup>24)</sup> 등의 연구에서 성욕이나 성충동을 전이시키는 방법으로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는 적절한 환경 및 여건 조성으로 청소년의 욕구를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원치 않는 성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sup>25)</sup> 주장하였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체계적이며 계속적인 성교육을 조기에 계획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이상관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그리고 건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성교육이 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본 조사는 인문계 여고생 2학년에게 연구자가 정규적으로 주 1시간 총 24시간에 걸쳐 성교육을 지침서에 의거, 실시하고 1학년과 교육을 주지 않은 2학년 여고생과 비교하여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준 효과를 설문지를 배부 후 회수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은 경남지역 1개교 542명을 교육군으로, 1학년 164명 그리고 비교육군 2학년 97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기간은 1988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었다.

대상 여학생의 70.8%는 부모와 성문제를 상담하지 않았으며, 98.5%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한 성교육 시기로 전체의 56.0%가 중학

교라고 응답했으며 성지식의 출처로 선생님께서로부터가 교육군의 30.1%인데 비해 비교육군은 19.1%로 양군간 유의한 차를 보였다 ( $p < 0.01$ ).

성에 관련된 인간의 해부 생리 및 2차 성징, 성병, 피임 및 임신 생리 등의 지식의 정도를 1학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육군은 평균치 이상인 여고생이 100.0%이었고 비교육군에 비해 (54.3%, 76.3%, 75.1%) 유의하게 높은 비율이었다 ( $p < 0.01$ ).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혼전 성관계와 인공유산에 대한 바른태도 및 가족계획 슬로건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교육군과 비교육군간 찬성유무 및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무관심 유무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 $p < 0.05$ ,  $p < 0.01$ ).

고등학교 시절의 이성교제,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 친구, 부모, 선생님과의 자유로운 대화에 대한 찬성율이 교육군과 비교육군간 유의한 차 ( $p < 0.05$ ,  $p < 0.01$ )가 있었으며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항목은 비교육군이 교육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참 고 문 헌

1. 변희재,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2(3): 120-130, 1976.
2. 김원근,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6: 188-199, 1961.
3. 김영희, 성역할 사회화에 관한 문헌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원우총론, 제 4집: 179-205, 1986.
4. 이귀현: 성교육 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 여름, 127-136, 1986.
5. 이정숙,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 과학연구, 367-383, 1983.
6. 정인임, 중·고등학교의 성교육 실태에 관한 고찰, 승의논집, 제 4집, 133-147, 1984.
7. 홍창남, 오늘날의 윤리관과 성교육의 제 문제. 경기장학, 여름, 83:250-257, 1984.
8. 이영우, 현대사회 청소년기의 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부산교대 논문집, 22(1),
9. 김귀희,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0. 허관래: 성교육, 무엇이 분세인가. 수도교육, 7:41-46, 1983.
11.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 청소년들의 생식, 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 인구보건연구원보, 1988, pp.5-15.
12. 김성훈, 고등학교 성교육 실험수업 결과 보고. 교육개발, 7(6): 62-68, 1985.
13. 문교부 추진 교육연구원 연구과제. 성교육 학습 지도자료 (고등학교용),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1982.
14. 전영자, 고영애: 여성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18:1075-1083, 1975.
15. 김옥란, 국민학교 6학년의 성교육 필요도와 성교육에 의한 성지식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6. 박준희, 성교육을 위한 문교정책의 방향. 새교육, 10, 125-129, 1970.
17. 박영희, 일부 중·고 여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경험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54: 8, 607-619, 1989.
18. 홍문식, 한국 청소년의 성실태 고찰. 한국 보건교육 학회지, 6(1), 22-23, 1989.
19. 성영자, 정연강,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이 상관변인에 대한 분석연구. 중앙의대지, 9(3): 461-477, 1984.
20. 이인영, 정연강, 국민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중앙의대지, 8(2): 185-199, 1983.
21. 김소야자, 도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집, 9:1-12, 1986.
22. Kirby, Douglas, Alter and Judith: The experts rate, important fea-

- tures outcomes of sex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80 (11):497-502, 1980.
23. Cornelia, W. and Aug, R.: Sex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3(1):81-91, 1973.
24. Mondetta, A and Nancy, W.: Learning about human sexuality. Nursing Outlook, 22 (8):525-527, 1974.
25. Lester, B. and Cox, J.: Involving nurses in public school sex educa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58 (3): 108-109, 1988.
24. Mondetta, A and Nancy, W.: Learning about human sexuality. Nursing Outlook, 22 (8):525-527, 1974.